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관리를 위한 해외사례조사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용

1. 조사 개요

세계자연유산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들과 공원관리기법을 견학/자료 수집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주의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고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 자원관리 및 방문객 관리 기법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10.5(화)에서 10.12(화)까지 6박 8일동안 호주의 브리즈번과 시드니, 멜버른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2. 조사 주요내용

사례조사 지역인 호주는 면적이 7,682,300km²로 한반도의 약 25배에 달하고, 인구는 1,830만명, 수도는 캔버라(Canberra)로 인구 31만명 정도이다. 호주 국민들은 영국계(80%), 유럽 및 아시아계(18%), 원주민(2%)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기독교(73%), 무교(25%), 불교·이슬람교·유대교(2%)로 되어 있다.



▶ 호주의 주요 도시 위치도

□ 브리스베인 시민공원(South Bank Parkland)

브리스베인은 퀸스랜드주의 주도로서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은 아열대성 기후로 여름에는 최고 기온이 29이고, 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10도로 내려가지 않아 연중 온화한 곳이다. 르네상스 풍의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식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다. 1988년에 엑스포가 열렸던 South Bank Parkland는 브리스베인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 즐겨 찾는 공원이다. 공원에는 인공해변, 박물관, 레스토랑, 열대우림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비롯해, 박물관,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연극, 오페라, 뮤지컬, 발레 등의 공연이 수시로 개최되는 콘서트 홀과 극장이 있는 공연예술관, 주립도서관 등이 갖추어져 있다.



▶ 공원내 보행우선표지판



▶ 공원내 표지판

브리즈번 강을 이동하는 수단으로는 페리(ferry)와 시티캣(city cat)이 있다. ferry와 city cat은 공공교통수단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적자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서울 시에서 이곳의 ferry와 city cat을 사례로 한강에 수상택시(water taxi)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 수상페리 정류장



▶ CITY CAT 운행 모습

□ 골드코스트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의 남부해안에서 퍼시픽 고속도로를 따라 파라다이스 포인트에서 뉴사우스 웨일스 주 경계의 쿨랑가타까지 40km에 걸쳐 있는 도시이다. 골드코스트는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면서 해양스포츠로 각광을 받는 곳임. 특히 서핑, 요트경기, 수상스키, 다이빙 등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F3자동차 경주대회가 2010년 3월 28일 맬버른 앨버트파크 그랑프리 서킷에서 열렸고, 매년 개최되는 F3 경주대회는 자연스럽게 전세계에 골드코스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 서핑을 준비중인 사람



▶ F3경주로(기존도로 경주에 이용)



▶ 노면유료주차장



▶ 무인주차요금계산기



▶ 음수대

□ 블루마운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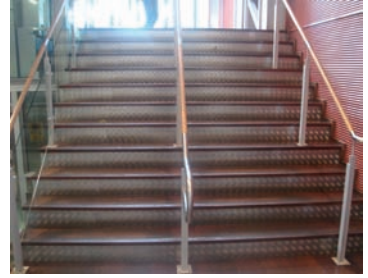
블루마운틴은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주말 등산이나 1일 관광코스로 유명하다. 시드니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세차매 바위, 경사 50도의 관광 궤도 열차, 케이블카 폭포 관광 및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약 1,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빔어내는 푸른 안개 현상으로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탐방객 계수기



▶ 친자연적 구조물



▶ 탐방객 동선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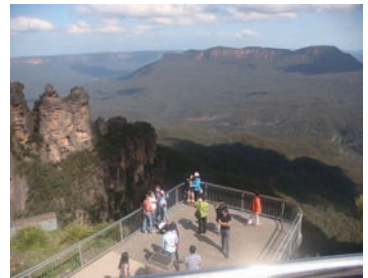
블루마운틴내의 에코 포인트(Echo Point)에서는 블루마운틴의 원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세자매 봉우리(The Three Sisters)의 기암이나 재미슨 밸리(Jamison's Valley)의 숲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남성적이라면 이곳의 블루마운틴 에코포인트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여성적이라 할 수 있다. 에코포인트 전망대 주변에는 탐방객들이 자유롭게 블루마운틴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탐방은 전망대 주위에서 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고, 호주원주민(애버리지니)이 나와서 고유한 악기를 연주하며, 원하는 사람들은 원주민과 함께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 에코포인트 안내석



▶ 세자매봉 전경



▶ 조망데크

□ 갭팍(Gap Park)

시드니 외곽인 Watsons bay에 위치한 곳으로 절벽틈새로 보이는 멋진 바다경치가 좋아 높여진 이름이



▶ 갭팍의 기암절벽



▶ 갭팍내 조형물



▶ 포진지

Gap Park이다. 약 100m 높이의 절벽이 자연스럽게 탐방객들의 눈을 끄는 곳이다. 이곳은 개척시대에 노동과 가난함, 고독에 절망한 사람들이 자살한 곳으로 유명한 공원이다. 이 절벽을 따라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이 둘러쳐 있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었다. 곳곳에 과거의 포진지가 남아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보여주고, 호주사람들은 바다전망을 가치있게 생각하여 주변에 고급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있었다. 전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영화 ‘빠빠용’의 배경이 되었던 절벽이 바로 이곳이다.

□ **그레이트 오션로드와 12사도 바위**

질롱 근교인 토키(Torquay)에서 와남불(Warrnambool)까지 약 214km.임. 세계1차대전 후 귀향한 군인들의 노동력과 재취업을 위해 착공된 이 도로는 완공에만 13년이 걸렸다고 한다. 또한 그레이트 오션로드를 지나가면 12사도상(The twelve Apostles)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을 만날 수 있었다. 12사도상은 수천, 수만년 동안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육지와 분리된 거대한 바위이다.



▶ 상징게이트



▶ 12사도상



▶ 사암층 절경

12사도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이곳의 과거 주차장이 해안에 가까워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해안면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탐방로를 따라 관람하는 것 외에 주변 농가의 헬기 등을 이용한 10분코스 헬기관광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 주차장(자연친화형)



▶ 주차장 안내판



▶ 헬기탐방

3. 시사점

호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국가의 자산이 많은 곳으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적자 운영이라도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었다. 가용할 토지 및 공원이 많고 공원내 시설물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공원 내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배제하고 보행 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하고 있었다. 공원시설물들은 획일적이지 않은 통일성을 가지며 기능적이었다.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지역이 가진 강점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호주는 서핑의 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양스포츠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볼거리나 인공적인 구조물 창조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을 성산일출봉 마을 활성화에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에코포인트와 같이 원거리에서 조망가능한 지점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즉 성산일출봉의 경우도 원거리에서 조망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도나 섭지코지 등에 에코포인트와 같은 지점을 설치하여 원거리에서 성산일출봉을 조망하게 하고 성산 일원에 체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줄 필요가 있겠다.

호주가 개척시대였던 시기에 피와 땀이 기억되는 곳으로 성산일출봉 외연부에 있는 진지동굴이 떠올랐고 이러한 아픔의 역사도 후세에 알려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산일출봉을 섭지코지나 우도에서 바라본다면 이곳에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12사도상에서는 12사도상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배치하였고, 헬기를 이용한 공중에서 탐방 등 다양한 탐방형태를 제공하고 있었다. 성산일출봉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일출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탐방형태 뿐만 아니라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탐방지점의 신규 조성 및 헬기탐방 및 해상의 유람선 등 탐방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성산일출봉 주차장의 경우 성산일출봉 초입부에서 이전을 할 것이며, 따라서 성산일출봉의 경관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경관축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산일출봉에도 일출봉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게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징가로 진입부에 설치를 고려하고자 한다.